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I-NURSING TIMES

SOL은 자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6호 2013년 2학기



C O N T E N T S

〈창조인재경영분야 특성화부문 대상〉
〈아시아권 전문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대학 선정〉

- 03 우송대학교
- 창조인재경영분야 특성화부문 ‘대상’
 - “2013년 아시아권 전문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대학” 선정



- 04 학과장 인사
- 신입 교수 소개

- 05 지역사회감염관리 센터 선정

〈졸업 및 취업〉

- 06 4학년 졸업 및 취업 소식

- 08 졸업식 인사
- 졸업생 인사 및 재학생 송사
 - 학부모 인사

〈우송간호 국제화과정〉

- 11 국제화과정 소식
- 호주요양병원실습,
 -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견학 후기
 - Fairmount Univ, 일본 교환학생 후기
 - 121st Hospital 견학
 - 산모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 14 외국어 소식
- 러시아어
 - 일어, 중국어 콘테스트
 - 영어 콘테스트

〈우송간호 역량강화〉

- 16 취업역량강화 활동
- SSAT
 - 창업동아리
 - 캡스톤 디자인
 - 다양한 특강 소식



- 20 우송간호의 교육역량
- 2014년도 입시열풍
 - 우송간호 교육의 현장 - “Sol Hospital”

〈간호학과 동정〉

- 24 국가고시 준비과정
- 교양스포츠
 - Sol Hospital
 - 학술제
 - 홈커밍데이
 - 축제
 - Sol Pun
 - 학생회 MT

- 26 대표인사 - 학회장, 부학회장, 편집국장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박소희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의 산실, 우송대학교

2013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 창조인재경영분야 특성화부문 ‘대상’ 수상



2013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 수상기업

부문	상세부문	기업명
기업가정신	상생경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미래지향경영	위동진레저타운티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경영	부산시설공단
	투명경영	금현구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회공헌	G마켓
	혁신경영	인천대교㈜
	미래혁신경영	전라남도함평군
	창의혁신경영	국빙기술품질원
	글로벌경영	한국콜마㈜
과학문화창달	과학문화 확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과학문화 구축	전라북도 정읍시
	글로벌인재양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창조인재경영	인재양성	한양사이버대학교
	인재양성/공공	한전원자력연료
	일자리창출	CJ그룹
	일자리창출/공공	경상북도 철곡군
창조금융	특성화교육	우송대학교
	금융경영/특성화	미래금융그룹
	금융상품	농협금융지주
	중소벤처기업지원	KDB산업은행
미래기술선점	창조형기업 지원	KB금융그룹
	신기술개발	금호타이어㈜
미래신산업창출	신사업진출	삼성SDI㈜
	지역기반산업강화	충청남도 부여군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은 부단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세계 경쟁 시장의 흐름에 부응해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며 창조경제의 흐름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주관은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 선정위원회와 열린경영연구원 등이 맡았다. 수상 기업과 기관은 단순히 현재의 경쟁 우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다.

우송대학교는 ‘GPS 전략(Globalization · 세계화, Partnership · 파트너십, Specialization · 특성화)’으로 상징되는 인재 양성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3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송대학교는 1년 4학기제, 전공과 관계 없이 10개의 글로벌 브랜드 과정과 6개의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 가능한 전공 융합제도, 기업체 출신 산학협력 중점 교수 10여명이 이끄는 산학협력 시스템 그리고 해외 유명대학들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취업난을 외치고 있는 요즘에 이례적으로 매년 꾸준한 취업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 박소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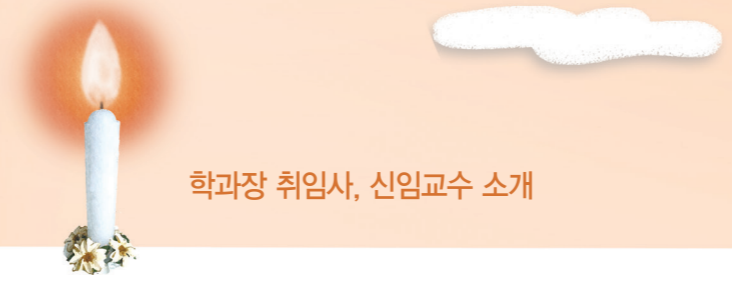
우송대학교, 아시아 리더의 요람

“2013년 아시아권 전문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대학” 선정



우송대학교는 2013년 8월 교육부와 한국대학평가원이 인증한 아시아권 전문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우송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학은 전국에서 30여 곳 뿐이다. 우송대학교가 아시아권 전문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이유는 미국 조지아 공대, 중국 북경 외대와 같은 해외 우수 대학교들과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매년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공동교육시스템인 3AIP(3 Asian Integration Program)를 운영함으로써 세계화와 특성화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 박소희 기자



학과장 취임사, 신입교수 소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학과장 정은영입니다. 학과장이 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1기, 2기 학생들과는 다르게 점점 학생들의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4년 1 학기가 개강되고 학생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새 학기부터 학과장으로써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업 뿐 아니라 건강도 챙겼으면 합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상대방을 존중하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다면 대중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높이고 잘못된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할 때는 병원의 크기나 주변의 의견보다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니 본인에게 맞는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뿌린 대로 거두리라) 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장애물이 앞길을 막을 때, 어떤 사람은 힘들게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넘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합리화를 하며 쉽게 되돌아갑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간호사가 되길 바랍니다.



윤계숙 교수

- 서울대학교 병원 및 삼성서울병원 근무
- 중앙공급실 간호사 회장
- 수술실 간호사 회장
- 아시아 수술간호사 회장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저는 임상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신규 간호사들이 느끼는 간호 교육과 실무 현장 사이에 생기는 괴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괴리를 학생들과 소통하며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학생 본인과 학교가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하길 바랍니다. 학생들 하나하나가 간호사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혜경 교수

- 부산대학교 병원 및 건양대학교 병원 근무
- 가정전문간호사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대전충남 가정간호사회이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병원에서 가정간호사로 활동하던 제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오게 된 이유는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활기찬 기운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으며, 지식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 경험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 경험한 학생들은 나의 기대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둔 우송간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연주 기자

우송대학교, '지역기반 감염관리지원센터' 개소

교내 첨단실습실 Sol-Hospital 활용, 지역 의료환경 수준 향상 위해 노력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지난 2013년 10월 23일 홍승원 前 대전광역시 의사회장,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본부장 등 보건의료계 주요인사 및 학교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과학관 5층 Sol-Hospital(첨단실습실)에서 '대전 및 충청 지역기반 감염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역기반 감염관리지원센터는 최신장비를 자랑하는 우송대 Sol-Hospital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1444명을 대상으로 22차에 걸친 일반 및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감염관리 개론과 감염 예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해당기관에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의료기관 대표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감염관리 전문가 12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다. 앞으로 대전 충청지역 음식점 등 많은 곳을 감염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몽골 등지의 5개 병원에도 감염관리를 확대 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 박소희, 김도연 기자



강암구 센터장(우송대 간호학과 교수)은 "감염은 단기간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염관리센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감염관리자가 일상생활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차원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 오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도록 크게 광고를 하고 있었다. 오만과 같이 감염관리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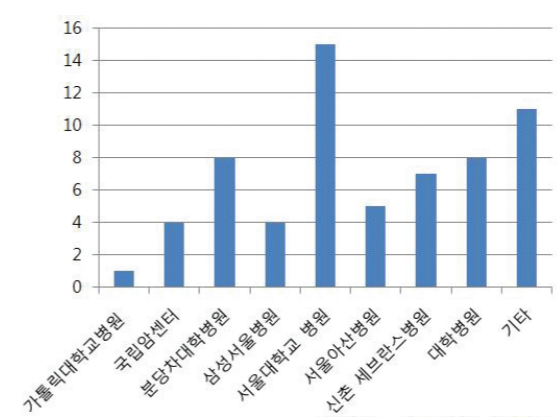
졸업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 2014 학위수여식



2014년 2월 21일 11시, 우송대학교 예술회관에서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졸업식은 축하에 이어 존 앤디컷 우송대학교 총장과 김성경 이사 등의 축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 학·박사 학위증 수여가 있었으며, 간호학과 대표로 최보경 4학년 학생이 단상에 올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간호학과 4학년 48명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조촐하게 열린 간호학과만의 졸업식 행사에서 졸업생들은 간호학과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약정했다.

>> 이유나 기자

우송대 간호학과, 2년 연속 취업 100% , 국가고시 합격 100%



2013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49명 중 49명이 병원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명, 서울아산병원 5명, 세브란스병원 6명, 삼성서울병원 4명, 충남대학교병원 2명 등 재학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2014년 1월 24일에 치러졌던 제 54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전원 합격이라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 주연주 기자

<2013년도 4학년 재학생 취업현황>
(중복합격 5명 포함)

노력과 열정의 지난 4년, 잊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 김지은입니다. 아직 추위가 기승을 부려 몸이 움츠러드는 이때에 저희는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지난 4년을 돌아켜보니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리울 것 같고 재밌었던 시간도 많습니다.

지난 4년은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큰 성장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타 대학, 타 과와는 다르게 학생 한명 한명에게 애정을 갖고 상담을 자주해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알려주며 같이 공감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힘든 4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10학년 동기들은 처음 서먹서먹하고 낯설던 사람에서 4년간 매일 보고 심지어 주말까지 함께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이나 학과 생활로 힘든 일을 같이 이겨내며 기숙사에서 야식 먹으며 같이 웃었던 동기들이 있었기에 함께라는 의미를 알았고 함께여서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4년을 보내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은 우리에게 조언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던 교수님 없이 두렵기도 하지만 언제나 저희를 마음으로 응원해주실 교수님께서 계시고 동기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용기 내어 나아가보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열정으로 우송간호의 2기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학번 졸업생 대표 김지은

자랑스러운 2기 선배님들의 앞날에 응원을 보냅니다.

10학번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11학번 나정민입니다.

2011년 3월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던 것이 불과 몇 달전 일 같은데 어느새 3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전원 국가고시 합격을 하여 멋진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이제는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일,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 여가활동이나 취미, 모두 다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입생이였을 때, 2인 1실에서 선배님들과 생활을 시작하며 학과 활동, 대외 활동, 교내 활동, 해외 연수와 같은 학교생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땐 선뜻 먼저 공부하긴 힘들지 않은지 먼저 물어봐주시던 그때의 고마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선배이자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가족 같은 선배님들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못할 큰 추억이 되었는데 이제는 한 학교 안에서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지켜봐주세요! 그 자리는 저희가, 그리고 저희 다음 후배들이 채워나가며 훌륭한 학과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기로서 1기 선배들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또 후배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고시 전원 합격! 취업 100%! 그 길 저희도 2014년에 따라나서겠습니다.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지난 4년 동안의 학업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 이였으며 그 노력과 땀의 결실은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에 크나큰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수님들과 저희는 모두 이 자리에서 선배님을 항상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 2011학번 재학생 대표 나정민



모험이었던 시작이었지만 결국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20년 전 비래동에 살 즈음, 출퇴근을 하던 길에는 늘 우송 대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외에는 대학교라고 여기지 않았던 제 생각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 큰 딸의 입시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물처럼 큰 딸이 태어나던 날, 제 손가락을 잡고 놓지 않았던 그 작디 작은 고사리 손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한데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고등학교를 마친 큰 딸의 진로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딸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남들은 대학 입시 준비에 하루를 금쪽 같이 보내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딸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연수를 계기로 딸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눈빛은 가까이 머물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꿈을 위해 딸아이는 많은 길 중에서도 간호학과를 졸업해 간호사로서 임상경력을 쌓고 더 나아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대학원 그 이후까지의 인생 플랜을 세워 부모를 설득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설득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로의 진학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송대학교와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처음에 품었던 의문이 신뢰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는 3학년을 마치자 돌연 휴학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우송대학교에서 유치한 전국대학생 모의유엔총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고 그 준비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선 1년을 휴학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도 했으나 이번 선택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리기 시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또한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도 아니고 기회가 온다 한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저는 딸아이를 믿었습니다. 지금 딸아이와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켜 보며 우송대학교와 여러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학도 없이 밤늦게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며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교수님들을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교수님 여러분의 열정을 알고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외에도 호주에서 취득한 요양보

호사 자격증 등 각종 경시 대회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지로 연수, 방문하도록 하여 해안을 갖게 해준 학교의 노력은 미래 사회의 힘이 되고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학생들을 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학교 측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딜 가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속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간호사로 합격한 딸과 학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병원에 취업한 소식, 동아일보의 전국 10대 우수대학에 선정된 소식 등을 통해 입학 때 가졌던 불신과 걱정은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저 없이 내 딸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합격



했고, 둘째 딸아이라도 우송대학교에 보낼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선물이고 축복인 자랑스런 딸 윤단비, 졸업을 축하한다.

>> 윤보용 (4학년 졸업생 윤단비 아버지)



호주 요양병원 실습을 통한, 선진 의료를 경험하다.



지난 2014년 1월 27일, 보건복지대학에서 진행되는 호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의 국내교육을 받고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2주간 호주 애들레이드의 요양병원과 요양원(nursing home)에서 실습을 하며 호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김동주, 김소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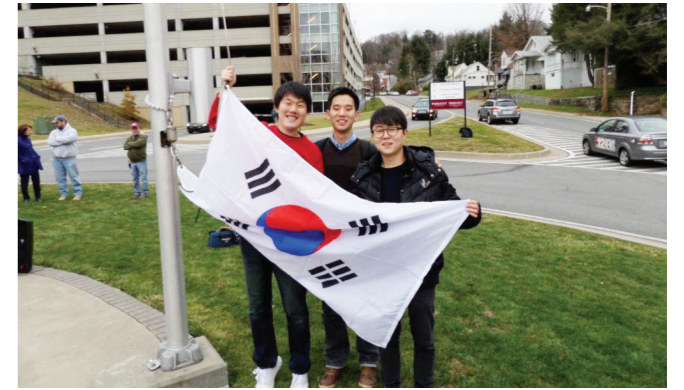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재활 및 운동을 체험하다.



2013년 겨울, 보건복지대학의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스포츠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1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35박 36일의 일정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요가, 유도, 스노보드, 스키, 댄스, 크로스핏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학생들은 코리안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통해 덴마크의 Gerlev, 오펜세, 수도 코펜하겐 등 덴마크의 유서 깊은 명소를 방문했다. 북유럽 연수에 참여한 간호학과 임연주 학생과 원동욱 학생은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소통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보람 있었던 해외 연수였다. 이번 북유럽 연수는 나로써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 주연주 기자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 현지 대학생할 인터뷰



간호학과는 글로벌 간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매해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 학기를 맞는 김진성 학생과 최유원 학생은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토론형식의 수업방식 택해서 학생들의 질문에 교수님들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시간이 날때는 학교 내에 있는 gym에서 운동도 즐겨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 중 하나예요. 이곳 Fairmont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미국간호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라며 앞으로의 꿈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 김동주, 김소은 기자

일본의 간호를 배우다. - 오카야마 현립대학교 연수 후기



간호학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교에 2학년 백효진, 위혜진 학생을 1학기 동안 연수를 보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2학년 백효진 학생은 “처음에는 일본어로 간호학을 공부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됐지만 일본의 간호를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2학년 위혜진 학생은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보다 즐기면서 유학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혹시 가고 싶은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라며 앞으로 우송간호 후배들의 도전을 격려했다.

>> 주연주 기자



한국 속의 미국 간호를 체험하다. - 한국 용산 기지 121st Hospital 방문 후기



2013년 11월 20일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명은 정은영 교수, 김경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서울 용산에 위치한 미군 병원인 121st Hospital(Brian Allgood Hospital)을 방문했다. 이 121st Hospital에서 학생들은 병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2개의 조로 나누어 소령과 함께 병원 곳곳을 투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ICU, NICU, OR등과 같은 특수파트와 Psychiatry(정신과), Pediatrics(소아과) 등을 둘러보며 각 파트의 미국인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 구체적으로 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 박소희 기자

시대에 발맞춘 다문화 산모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간호학과에서는 2014년 1월부터 5주간 국제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산모도우미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우선, 산부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분만 전 후 관리, 임신 중 증상, 신생아 관리 등 산모를 돕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교육이 끝난 뒤, 학생들은 각 팀 별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연결되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교육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책을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하는 등의 산모도우미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박정란 학생은 “5주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산모와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도우며 살아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주연주 기자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Global Nursing을 위한 우수간호의 “러시아어” 정복기

간호학과는 영어 다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 2외국어 공부 열기가 뜨겁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수업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단연 러시아어 수업이다. 우수대 간호학과 러시아어반 학생들은 러시아어 수업을 1학년 때부터 시작해 3학년까지 계절학기를 포함해 매년 4학기씩 배우고 있다. 러시아어 수업은 러시아 원어민 교수님으로부터 기초 인사부터 배우

기 시작하며 러시아어 연극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다진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간호사나 환자 역할이 되어 회화 연습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학년까지의 러시아어 교육과정을 끝마친 후에는 러시아어 자격증을 따도록 장려하고 있다.



< Victoria 교수님소개 >

- 분야 : 러시아어
- 학력 :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 경력 : Khabarovsk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Russia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 Victoria 교수님 인터뷰 >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Victoria Kolbasyuk입니다. 저는 러시아 Khabarovsk에서 왔고 러시아에서 저는 영어와 독일어를 가르쳤고 현재는 우수대학교에서 8년째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Q.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이 러시아어 학습과정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업이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수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친지 8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철도물류학과에 러시아어를 교육하러 왔을 때는 한국 학생들한테 정말 어렵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에서 러시아어를 교육과정에 넣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한국에서 러시아어의 교육이) 명확해지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그들의 학과적 성취동기가 매우 높고, 가르침에 능동적이며 모든 것을 열심히 합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화 생활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준수한 영어 실력을 통해 러시아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간호학과 학생들은 러시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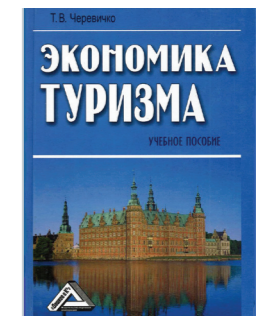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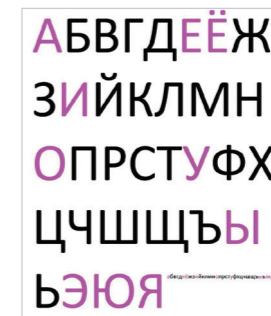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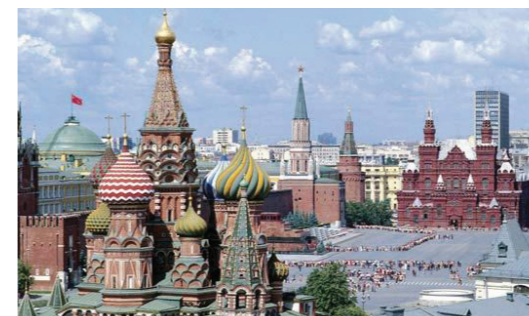
인증능력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Q.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3학년 장서진 학생 : 러시아어는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영어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다소 어렵고 생소하지만 한 가지 언어를 더 배우다는 생각에 기대되기도 하고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러시아어를 이용해 연극이나 병원역할극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 박소희 기자





일본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한 우수 간호



2013년 11월 8부터 14일까지, 교양교육원에서 주최한 제 10회 외국어 경진대회가 열렸다. 우송대학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국제 교육센터 소강당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자유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고, 8일은 예선, 14일은 본선으로 이어졌다. 일본어 대회에서는 2학년의 제원미, 김소진 학생이 3등을 하였고 중국어 대회에서는 박진영 외 2명이 장려상을 수상 하였다. 이번 대회는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김동주 기자



간호학과 학생들, 영어경진대회를 휩쓸다



2013년 11월 1일 오후7시, 보건복지대학에서 아시아리더 영어경진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가정관 시청각실, 보건의료과학관 102, 103호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대학 소속의 아너스 반과 간호학과 영어A반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 졌다.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2학년의 이경진 외 2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김예림 외 2명, 박진영 외 1명이 상을 받았다. 아시아를 미래를 이끄는 우수간호인의 앞날이 기대된다.

>> 김동주 기자

기업 맞춤형 취업 준비 - 직무적성검사 준비반



간호학과는 국가의 지원(ACE사업)을 받아 201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직무적성검사 수업을 2013년 상반기부터 재개하였다. 강의는 Educe강사를 초빙해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월요일에는 언어, 추리, 직무상식이 포함된 직무적성평가, 금요일에는 기초 수리를 강의를 들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직무적성검사를 수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김도연 기자

취업을 넘어서 이젠 창업이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보건복지대학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3달 동안 '창업동아리'란 이름으로 실시된 협동조합에 주축이 되어 창업 동아리 수업을 들었다. 창업동아리는 창업 또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주 1회 수업을 통해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을 배운 후 협동조합 조직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경험을 듣고 질문을 통해 창업, 사업 등 많은 것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김도연 기자

학교 너머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수업, 캡스톤 디자인



2013년 2학기, 간호학과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여하였다. '캡스톤 디자인'이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설계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진대회 날, 간호학과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모든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김도연 기자

명 / 사 / 특 / 강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한국 간호학박사 1호, 김수지 박사를 만나다!

2013년 10월 8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김수지 박사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김수지 박사는 이화여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보스턴대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간호학 박사 1호다. 김수지 박사는 학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을 방학 등을 통해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지 박사는 정신 질환자들의 치료법으로 ‘사람 돌봄’이란 이론을 정립하였고, 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병을 이기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수지 박사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상은 간호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이다. 김수지 박사는 한국에 귀국한 후, 불모지였던 국내 호스피스 확산을 위한 센터건립기금기부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김도연 기자



“의료서비스의 핵심, QA!” - 서울대학교 병원 김문숙 팀장 특강

지난 12월 10일 우송타워 4층 대강당에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기록 조정실 QA센터의 김문숙 팀장의 의료기관의 QA개념과 활동 사례에 대하여 특강이 진행되었다. QA센터는 의료 품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강의를 통해 우수 간호 학생들은 그동안 잘 알지 못 했던 의료기관의 중요한 QA개념, 그 중요성과 사례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 김동주 기자



“프로냐 포로냐, 그것이 문제로다!” - 강남 세브란스병원 우금명 간호국장 특강

2013년 12월 12일 우송타워 4층 대강당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우금명 간호국장은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자세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우금명 국장은 전문인으로서의 직업능력과 직업의식을 강조했다. 직장인을 ‘프로와 포로’ 두 가지로 나누어 진정한 전문인이려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는 우선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을 정리했다.

>> 이유나 기자

우송간호의 역량, 뜨거운 입시경쟁으로 입증되다.



수시 1차(10월 4일 ~ 10월 5일), 수시 2차(11월 22일 ~ 11월 23일) 면접 고사를 통해 각각 11월 29일과 12월 5일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었으며, 1월 23일 정시, 그리고 2월 12일, 마지막 추가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모든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다. 올해, 간호학과 수시 경쟁률은 30:1을 넘으며, 대전 / 충청권내 4년제 대학 중 수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간호학과는 수시와 정시를 통해 총 8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간호학과 재학생은 대전 / 충남지역뿐만 서울 / 경기 / 경북 / 경남지역 등 전국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울 / 경기지역은 전체 재학생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인 만큼 앞으로 우수 간호인으로서의 행보가 기대된다.

>> 우주희 기자





▲ Sol-Hospital 내부 전경

살아있는 실습을 경험한다! - 최첨단 모의병원 “Sol-Hospital”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과학관 2, 4, 5층에 위치한 “Sol-Hospital”은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모의병원으로 흡사, 병원현장에 온 것과 같이 생생한 병원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Sol-Hospital”의 5층은 병원의 특수부서인 중환자실(ICU)과 수술실(OR)로 구성되어 있다. 4층은 일반병실과 외래, 중앙공급실

등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2층은 일반병실 및 기초간호학 실습실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간호학 실습교육 제공 및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임상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층별, 실습실별 구조와 실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해 보았다.

< “Sol-Hospital” 5층, PICU, ICU, OR >

“Sol-Hospital”의 5층은 PICU & NICU(소아&신생아 집중치료실), ICU(성인중환자실), OR & DR(수술실 & 분만실)의 3개 Unit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Unit에는 실제 환자와 같이 반응하는 Sim-Mam3G가 갖추어져 있다.



▲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 Sim-Junior Simulation 실습 모습

첫 번째 Unit은 소아 및 신생아간호가 이루어지는 “PICU-소아·신생아 중환자실”로 인큐베이터, ICS(신생아 집중치료시스템), 광선 치료기 등을 갖추고 있어 신생아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Sim-junior”를 통해 소아 환아 간호를 직접 실습할 수 있다.



▲ Intensive Care Unit



▲ Sim-Man Simulation 실습 모습

두 번째 Unit은 성인중환자 간호가 이루어지는 “ICU-성인중환자실”로 최신의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Emergency-cart, 전동 침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Sim-Man”을 통해 성인환자의 질병 상황별로 구현하여 실습할 수 있다.



▲ Operation Room



▲ Noel Simulation 실습 모습

세 번째 Unit은 수술, 분만간호가 이루어지는 “OR & DR-수술실 & 분만실”로 실제 수술장과 같이 외과적 손씻기를 수행할 수 있다. 수술장에서 사용되는 무영등, 수술침대, 수술셋트등이 구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Noel”을 통해 수술 및 분만과정을 재현하여 실습할 수 있다.



< “Sol-Hospital” 4층, Nursing Care Unit >

“Sol-Hospital”의 4층은 일반병실과 외래, 중앙공급실등의 모습을 구현하였으며,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간호가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Nurse Station, OSCE Room, Central Supply Room, Healthcare Promotion Room,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의 5개의 Unit로 구성되어 있다. 각 Unit별로 기능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자.



▲ Nursign Care Unit 전경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4층의 가장 안쪽에는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이 있다. 이곳은 병동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간호학 실습 및 입원환자 간호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환자간호 마네킹과 건강사정에 활용할 수 있는 Simulator 및 CPR수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신심폐소생모형(성인용/소아용)이 구비되어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 Nursign Station 전경



▲ Central Supply Room 내부 모습

Nursign Care Unit에 들어서면, 일반 병원의 병동에 들어선 것과 같은 ‘Nursing Station’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입원환자 간호가 시작된다.

Nursing Station 뒤편에는 Sol-Hospital에서 사용되는 모든 실습 기자재가 병원의 중앙공급실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실습에 필요한 물품들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 Healthcare Promotion Room 전경

실제 병동과 유사한 구조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BMI 측정기, Patient Monitor등이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 OSCE Room 전경

외래진료실과 유사한 구조로 건강사정 강의 및 실습과 외래환자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OSCE Room안쪽에는 EMR을 연습할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전자차트기록 실습을 할 수 있다.

< “Sol-Hospital” 2층, Fundamental & Basic Nursing Practice Room >

“Sol-Hospital” 의 2층은 일반병실과 같은 환경의 기본간호학 실습실과 기초간호실습실인 2개의 Unit로 구성되어 있다.



▲ 2층 실습실 전경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 >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4층의 가장 안쪽에는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이 있다. 이곳은 병동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간호학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도 4층 기본간호학 실습실과 마찬가지로 환자간호 마네킨과 건강사정에 활용할 수 있는 Simualtor 및 CPR수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신심폐소생모형(성인용/소아용)이 구비되어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 >



▲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



▲ Fundamental Nursing Class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Room”에는 실습에 필요한 각종 모형이 구비되어 있으며, 강의실에서 바로 강의와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Basic Nursing Practice Room >



▲ Basic Nursing Practice Room - 해부학



▲ Basic Nursing Practice Room - 미생물학

기초간호학 실습실은 각종 해부 모형과 현미경, 배양기등이 구비되어 있어 해부학 및 해부학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진다.

4학년 국가고시 100% 합격의 과정과 그 비결



2014년 1월 24일, 제 54회 간호사 국가고시가 시행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은 49명이 모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우송도서관 6층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책상에서 하루 열 여섯시간을 공부에 매진했다. 4학년 권선희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룹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우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 김소은 기자

스키와 댄스 스포츠로 건강도 UP! 교양도 UP!



2013학년도 2학기,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은 스키, 수영, 스포츠 댄스 중 한 강좌를 선택하는 체육 교양과목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였다. 스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강원도 평창으로 스키 캠프에 다녀왔으며 수영 강의는 매주 토요일 솔브릿지 국제대학 수영장에서 실시되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학생들의 힘찬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스포츠 교양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를 배우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만큼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 김소은 기자

FUN! FUN! WOOSONG FESTIVAL!



9월 26일과 9월 27일, 축제가 이틀에 걸쳐 우송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간호학과는 이번 축제에 참가하여 치즈 케이크와 아이스티를 판매하였다. 또한 절주 동아리의 무알코올 칵테일 시음행사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에서 축제 방문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무료로 측정해주는 이색적인 행사도 마련,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 최재필 기자

Home Sweet Home, 우송대 간호학과가 하나로



10월 25일 금요일, 솔브릿지 국제대학 6층 강당에서 'Home Sweet Home'을 주제로 'Home coming Day'가 열렸다. 작년에 졸업한 간호학과 2009학번 1기 졸업생들을 초대하여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한자리 모여 시간을 가졌다. 후배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현주 학장의 기념사와, 1, 2, 3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영상물 상영 시간, 선후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약 한 시간의 행사 후, 졸업생들을 위한 Sol-pine restaurant에서의 화합 행사도 이어졌다.

>> 우주희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큰 꿈을 그리다



1월 13일,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명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견학이 “취업을 앞둔 학생간호사로서 기업병원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김소은 기자

연극과 퀴즈로 즐기는 공부, 간호학과 학술제



10월 4일 금요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술제가 열렸다. 간호학과 전 학년이 참석하여 전공지식과 병원 상황을 바탕으로 한 연극 동영상 시청하였고 전공과목 지식 수준을 시험하는 골든벨을 통해 1, 2, 3, 4학년이 고루 섞인 팀이 다같이 힘을 합쳐 퀴즈를 풀기도 했다. 이어 간호학과 교수들의 '공부비법에 관한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 이유나 기자

Pride Up! 새 학기를 맞은 우송간호의 다짐



9월 4일, 우송타워 4층 대강당에서 간호학과 제 3회 슬픈 행사가 진행되었다. 우송간호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간호학과 학생회가 준비한 큰 행사였다. 슬픈 행사의 주요 식순으로는 신입교수소개, 2학기 학생회 및 VS규칙 소개, 그리고 명예서약식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학년별 여름학기 생활, 우송지수가 있었다. 슬픈 행사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를 돌아보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김동주 기자

제 1회 학생회 Membership Training Camp



2013년 10월 18일과 19일, 동학사 소재의 펜션에서 간호학과 학생회는 Membership Training Camp 행사를 가졌다. 이번 첫 Membership Training Camp 행사에서 학생회 임원들은 맛있는 바비큐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서로와의 화합과 단결력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최재필 기자

2013년을 마무리하며

“서로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낀 2013년”



간호학과와 대표 학생, 학회장. 내가 학회장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록 시작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나,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축제준비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차례로 술편, 학술제, 홈커밍파티, 수시 1,2차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것은 교수님들께 여쭙보고, 학생회 임원들과 회의하고, 각 국들과 행사를 진행해나가면서 추진력과 책임감,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학년 2학기의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를 학생회와 함께 얻을 수 있었다. 2013년 2학기 간호학과 학생회에서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각기 맡은 역할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임원들, 과대들, 학술국원들, 편집국원들, 홍보국원들, 문화국원들, 총무 및 감사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준 바쁜 스케줄과 방대한 학업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다. 화이팅!!!

>> 학회장 조민경

“즐거운 간호학과를 만들어보자!”



‘3학년 2학기’는 나에게 조금 특별한 학기였다. 엄청난 공부량에 떠밀려 열심히 공부하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기도 하였지만, 간호학과와 부학회장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학과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도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든든한 학회장과 학생회 임원들 덕분에 모든 학과 행사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2학기 학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회장과 ‘즐겁게 학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다.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든 학과 행사들을 무사히 마쳤으며 어느 때 보다 화목하고 즐거웠던 학생회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학생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학과 학생 전체, 그리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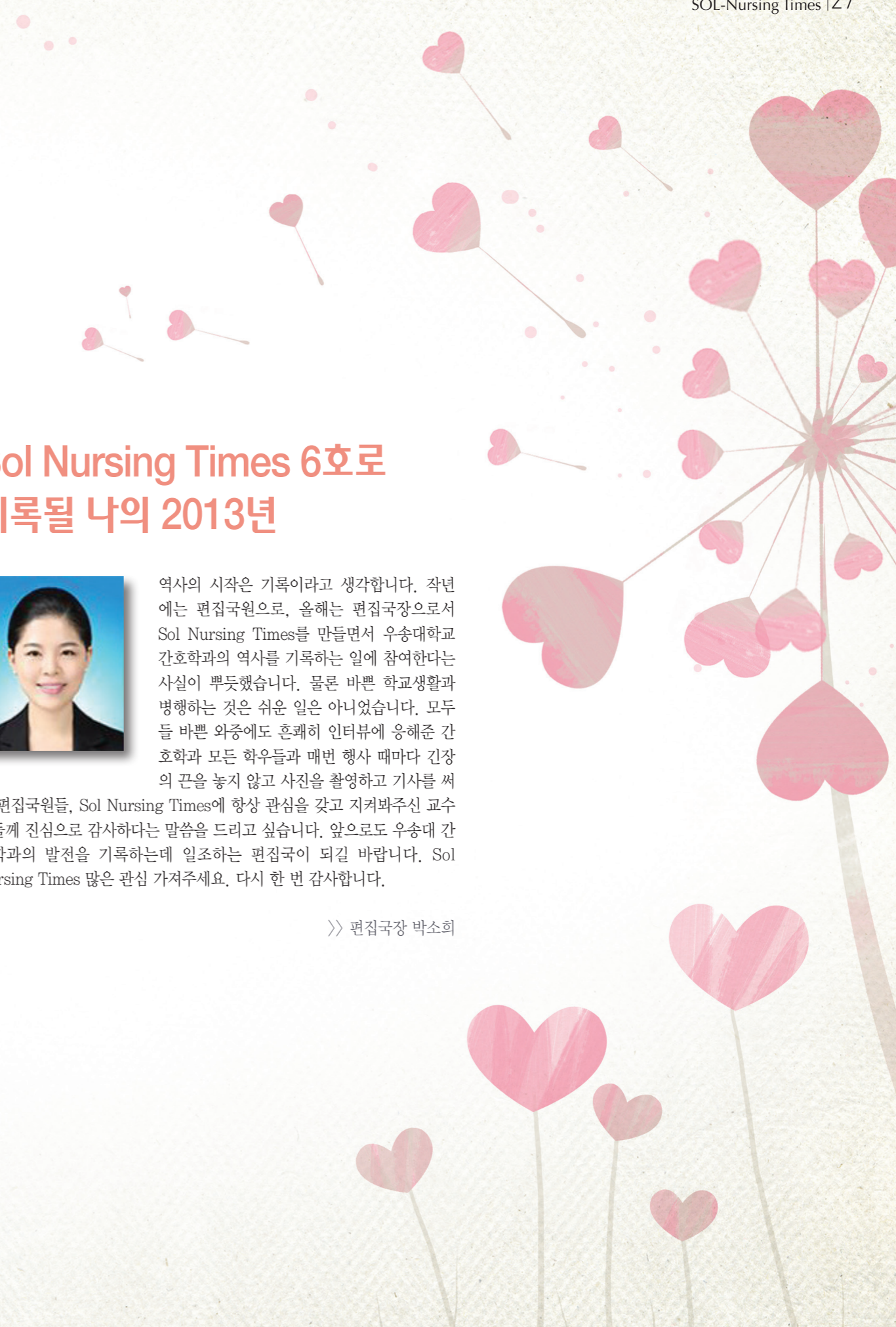
>> 부학회장 김지은

Sol Nursing Times 6호로 기록될 나의 2013년



역사의 시작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편집국원으로, 올해는 편집국장으로서 Sol Nursing Times를 만들면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물론 바쁜 학교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간호학과 모든 학우들과 매번 행사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써준 편집국원들, Sol Nursing Times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송대 간호학과와 발전을 기록하는데 일조하는 편집국이 되길 바랍니다. Sol Nursing Times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편집국장 박소희



제 6호 2013년 2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